제5문서

제5문서를 내놓으면서

우리 교단이 새 역사를 시작한 지 불과 16년 만에 '교육정책'(1969년 제54회 총회)을, 그리고 1971년에 '사회선언지침'을, 1972년에 '신앙고백서'를, 1973년에 '선교정책'을 채택한 것은 참으로 장거였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열심이 맺은 결실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4대 문서를 불러왔다.

그러나 마땅히 '신앙고백서'가 제일 먼저 채택되고 그와 연관하여 정책과 지침이 나왔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순서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과 함께 문서들이 각각 개별화되어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다. 또한 어느새 거의 18~14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고 따라서 세상의 상황과 우리에게 부여되는 선교적 과제에 큰 변화가 생긴 것도 사실이다.

이에 오늘 우리의 신앙고백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선교, 교육정책이 새롭게 혹은 보완적으로 요청되어 왔다. 1984년 제69회 총회는 '교단문서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4대 문서의 연구, 보완작업을 시작하였다.

1985년 제70회 총회에서는 현재의 4대 문서는 역사적 의미가 충분히 있는 것이며 또한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둔 채 보완적 제5문서를 내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86년 제71회 총회에 중간보고서를 내어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긍정적 검토를 받았었다. 동시에 상당수의 위원을 교체하여 새로운 시각을 더하는 배려가 있었다. 동 위원회는 본 문서 초안을 중심으로 각 노회 대표와 신학자들의 공청회를 거쳐 제72회 총회(1987년 9월)에 이 문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세계교회의 최근 관심은 곧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요 관심 바로 그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것은 정의 · 사랑 · 평화 · 창조 세계의 유기체적 보전이다. 이것이 변화된 상황(context)이며 본 제5문서는 이 상황의 변화에 대응한 신앙선언, 교회선교, 사회선교, 교회교육정책을 명시하고자 했다.

교회선교와 사회선교, 그리고 교회교육정책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나 대응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그러나 '신앙고백선언'은 교리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 제2장 '1987년 신앙선언'은 우리의 헌법을 변경하는 일이 아니라 헌법상의 '신앙고백서'를 그대로 받으면서 앞서 지적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는 1987년 신앙선언을 제시한 것일 뿐이다. 한편 이것을 원리로 하여 다음의 각 지침을 정리하였다.

또한 예식서 본문이 아니라 표지 뒷면에 수록해 온 신앙고백은 총회에서 채택한 흔적이 없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통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문서 1987년 신앙선언 속에 포함시켰다. 헌법교리를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곧 신조연구위원회를 발족시

켜 ‘신앙고백서’의 보완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 믿는다.

교회는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하며 선교적 대응도 날로 새로워져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 원론적 신앙고백이 그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987년 9월 총무 김상근

1991년 6월 총무 서정래

<제목 차례>

1. 오늘의 현실과 교회의 선교상황에 대한 인식 ····· 5

1) 공생적(共生的) 인류공동체의 상실 ····· 5

2) 정치·경제적 양극화 현상 ····· 6

3) 남북한 분단 현실 ····· 7

4) 인간성 상실의 현실 ····· 8

5) 한국 전통문화의 붕괴 현실 ····· 8

2. 1987년 신앙선언 ····· 10

우리의 신앙선언 ····· 13

3. 오늘의 선교와 우리 교단 ····· 14

1)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 ····· 14

2)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 15

3)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 16

4) 계약 공동체로서의 교회 ····· 17

5) 우리 교단의 자기 정체성 ····· 18

4. 교회선교 정책 ····· 19

1) 전도와 개척교회 ····· 19

2) 도시 선교 ····· 19

3) 도시빈민 선교 ····· 20

4) 노동자 선교 ····· 20

5) 농어민 선교 ····· 21
6) 문화 및 매스컴 선교 ····· 22
7) 학원 및 병원 선교 ····· 23
8) 군대사회와 경찰사회 선교 ····· 24
9) 신체장애인 및 요 보호 대상자 선교 등 특수선교 ····· 24
10) 세계선교와 해외교포 선교 ····· 25
11) 국내외 교회간의 선교협력과 선교동역자들 ····· 25
12) 선교구조의 조직갱신과 선교 능력의 개발 ····· 26

5. 사회선교 정책 ····· 26
1) 정의와 평화공동체 지향적 선교 ····· 26
2) 민중지향적 사회선교 ····· 27
3) 사회 이념의 선도 ····· 27
4) 세계 패권주의의 군사.정치.경제 지배체제의 극복 ····· 28
5) 남북한 분단 현실의 극복 ····· 28
6) 폭력 사용의 죄성과 신앙적 결단 ····· 29
7) 교회의 정치적 발언과 정치 참여 ····· 29

6. 교회교육 정책 ····· 30
1) 성서와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 ····· 31
2) 교회교육 내용 ····· 35

1. 오늘의 현실과 교회의 선교상황에 대한 인식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간공동체를 억압과 고통으로 비인간화시키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공생적 인류공동체를 상실한 현상이요, 둘째 국제적 패권주의에서 비롯된 인류공동체의 정치·경제적 양극화 현상이며, 셋째 이와 같은 낡은 가치관의 결과로 빚어진 한반도에서의 남북 분단 현실이고, 넷째 고도화된 기술 산업 사회와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간성 상실의 현실이며, 다섯째 창조적으로 해석되고 계승되어야 할 전통문화의 붕괴 현실 등이다.

1) 공생적(共生的) 인류공동체의 상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비극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기계론적인 세계관과 거기에 인간의 탐욕 및 권력욕이 가세하여 초래되었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국제질서나 국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유기적으로 서로 의존하며 보완하는 공생관계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보전 원리를 부정하는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국가주의가 인류사회의 창조적 전진과 공생적 공동체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생명 없는 물질적 원자들의 집합체가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홀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다. 자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유기체적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 및 인간과 사회적 관계 또한 그러하다. 특히 성서가 증언하는 인간관은 사랑과 자유를 토대로 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요, 사랑과 자유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기체적 창조 세계의 보전 원리가 깨어져 버린 오늘의 역사 현실 속에서는 오로지 자연에 대한 수탈과 파괴, 그로 인한 모든 피조물의 생태학적 위기, 인류공동체의 연대감 파괴, 인간의 탐욕과 무한한 소유본능에 의한 인간 자신의 물상화와 도구화, 그리고 서로 피 흘리게 하는 투쟁과 자기 파괴만이 있을 뿐이다.

오늘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역시 개인주의적 인간관에 깊이 물들어 있다. 오늘의 교회는 인간이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성서적 인간관을 오히려 개인주의를 정당화시켜 주는 문화적 이념으로 변질시켜 해석해 왔다.

강대국의 국가주의, 백인종의 백색 문명 우월주의, 기독교의 종파주의, 개신교의 교파주의 및 개교회 중심주의 등도 모두 창조적이고 공생적인 인류공동체 형성을 저해하거나 도외시하게 하는 원인이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같은 인류, 같은 민족 사이에 가난과 인간 소외가 극심한 지경에 이르러도 아랑곳없이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만을 향유하고 강화하려 힘쓴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는 창조적이고 공생적인 인류공동체 형성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이다.

2) 정치 · 경제적 양극화 현상

오늘날 국제사회에는 지난 세기의 유물인 제국주의적 망령과 무력적 힘을 숭상하는 패권주의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간공동체의 연대감은 파괴되고 있으며, 지배와 종속이라는 정의롭지 못한 관계가 형성되어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다. 한 국가사회 안에서도 정치권력 집단의 권위주의와 군사적 제도 및 질서에 안주하여 그 현실을 유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관료적 독재주의가 팽배해 있다. 특히 선진 산업국가의 기술과 자본 지배에 종속되어있는 제3세계 국가의 민중들은 처참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실정이다. 역사적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죄악과 비극은 하나님의 뜻, 곧 정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며 따라서 반드시 극복되어야만 한다.

선진 산업 국가들과 미 · 소를 중심한 군사 대국들은 기술과 자본, 정치와 군사, 그리고 문화적으로 제3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오늘의 역사적 현실은 정의롭고 합리적이며 상호 협동적인 질서가 아니다. 오히려 세계통화금융, 세계은행, 군사적 방위조약 및 동맹, 보호무역과 과세법안 등으로 특징짓는 현 국제사회 질서는 강대국들의 이기주의로 하나님의 정의가 왜곡된 질서이다. 현재의 세계질서는 강대국, 선진국, 부국, 기득권자들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적 부정의 그 자체이며, 이는 제도적으로 합리화되어 버렸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절대 부국과 절대 빈국, 절대 강과 절대 약소국, 지배국과 종속국으로 양극화된 오늘의 국제사회가 하나님의 정의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변혁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개체 국가사회의 질서 역시 비인간화되어 있다. 즉 국가의 주인이요 실체인 국민, 그중에서도 민중의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정의롭지 못한 기존 질서와 제도적 억압 및 체제적 부정의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다. 민중은 기존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면서도 노동으로 재화를 창조하고 나라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탱해 가는 국민의 실체요 핵심계층이다. 한 사회 안에서 악법을 자행하거나 악법을 통해 비호받는 무리가 오히려 특권을 누리면서 불로소득과 사치와 향락에 젖어 살아간다면 그 사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반역하는 공동체라 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이 같은 죄된 구조를 개혁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민주화를 실현해 가야 한다. 정치적 민주화 없이 주권재민의 원리를 실현할 수 없으며, 자주적 국가 형성은 더욱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민주화 없이 빈부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으며 문화적 민주화 없이 가치관과 문화에 있어서 식민주의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 분단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국민적 힘은 참된 민주화를 실현함으로써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인류사회는 상호협동과 개방을 통하여 서로 도우며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오늘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난무하는 패권주의, 권위주의, 신식민주의, 무력숭상주의, 특정 사회계급의 국가 사회독점, 지배주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인류공동체 및 각 국가 공동체 속에 정의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가 구현된 공생적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요청하시기 때문이다.

3) 남북한 분단 현실

한국교회는 남북한 분단 현실에 대하여 적어도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분명하게 그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우선 한반도의 분단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우리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있으며, 특히 한국기독교의 몰역사적 역사 인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통일된 나라를 건설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자체의 분열을 막지 못했고 더욱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국토분단까지 불사하는 남북한 권력 지배계층을 견제하지도 못했었다. 또한 주변 강대국의 신식민주의적 지배전략을 막아내지 못했으며, 각자 자기의 이해관계를 쫓았을 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했었다. 더욱이 특정한 상대적 상황 속에서 정의·평화·사랑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에 비겁했고 태만했었다.

또한 우리는 이와 함께 한반도 분단의 실질적 책임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를 지배하려고 혈안이 된 패권주의 국가들의 탐욕과 오만과 무정함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하는 세계열강들이 패권주의와 신식민주의적 야망과 국제정치 및 군사 전략적 계획에 따라 자행한 주권 침해요, 이는 살아 숨 쉬는 하나의 민족 공동체의 혈액순환과 생명의 기(氣)를 단절시킨 사건임을 깊이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남북한의 군사 대치, 핵무기 및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와 계속되는 증강 경쟁, 남북한 상호비방과 증오심 고취, 분단상황의 고착화,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명분으로 한 외국 군대의 주둔은 최단시일 안에 극복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패권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신식민주의 정책의 일환이며, 전략적 국제 정체의 역학관계에서 나타나는 산물이기 때문이다.

분단 현실에 대한 교회의 상황인식은 역사적 현실에 대한 사실 판단에서만 그쳐서는 안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분단상황에 저항하며 민족자존과 인간 존엄의 이름으로 분단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강렬한 통일에의 의지를 국민적 힘으로 집결해 내야 한다. 정치 및 경제적 이념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인간의 그것들을 위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교회는 이러한 성서적 인간 존엄의 원리와 함께 인간 사회의 모든 이념과 그에 따른 모든 제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대적 도구요 방편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민족 구성원들은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의 정치·경제 이념을 절대화시킨 북한의 정치 종교나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정치·경제 이념을 절대화시킨 남한의 정치 종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교회는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 공동체를 지향한다. 따라서 교회가 상대적인 이념 하나를 절대화하여 자기와 동일시하거나 일치시킨다면 그것은 교회가 간음하는 것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 극복은 남북한 지배계층과 집권 계층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다. 이는 이 땅의 전체 국민과 민중의 평화·통일에의 의지 및 지혜와 그 힘으로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 민족의 구체적이고도 자주적인 힘에 의한 통일, 민족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통일, 그리고 분단으로 극심한 피해를 받아 온 민중의 뜻이 수렴된 평화적 방법의

통일이어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화해와 남북한 분단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는 그날이 바로 한국 민족의 새 날일 뿐만 아니라 새 인류의 새 시대를 시작하는 날임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향하여 통일의 과제를 주셨다. 특히 이 과제는 1980~90년대를 사는 한국교회의 가장 중대한 선교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4) 인간성 상실의 현실

우리는 교회선교, 사회선교, 교회교육에 필요한 선교정책을 확립하기 위하여 현재의 문화적 상황이 안고 있는 인간성 파괴 위기와 창조적 가능성 두 가지를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 우리의 문화적 상황이 지닌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현대 문화의 일반적 속성은 피상적 자율문화, 물질주의적 소비문화, 세속주의적 상업문화, 깊이와 개성과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기술과학에 지배당하는 일차원적 군집문화 등이다. 따라서 교회의 선교는 인간의 문화적 삶 속에 깊이와 의미를 줄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여 지켜 가는 것이어야 한다.

현대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상대주의적 다원주의 문화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화 속에는 삶의 통일성과 가치를 수렴할 수 있는 궁극적 가치규범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지닌 다양성과 새로움이 몰가치적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창조적 갱신의 원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대문화가 특정한 가치체계에 의해 지배당하게 되는 문화제국주의의 과오나 바벨탑과 같은 문화적 오만을 범하지 않도록 선도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지난 300여 년 동안 서구 세계를 지배해온 기계론적 우주관과 기계론적 생물학에 기초한 인간관이 아직도 인류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지배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젊은 세대와 창조적인 과학자와 지성인, 그리고 생명 문화 지지자들이 창조적인 공생문화와 유기체적 자연관에 기초한 우주관, 그리고 정신과 물질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새로운 인간관을 추구하고 있음을 본다.

아울러 우리의 문화적 상황은 남성원리 혹은 부성원리의 일방적 지배를 반성하고 여성 혹은 모성원리를 회복하여 보완할 것을 시급히 요청하고 있다.

또한 현대의 기술 공학 문명은 정보화시대라 불리는 새로운 문명사회를 열어가고 있다. 특히 전파매체의 발달과 컴퓨터 시스템 및 전자 자동제어장치 등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관습과 사고 형태까지 바꿔갈 전망이다. 따라서 교회의 선교는 대중 정보 매체의 민주화, 기술공학 문명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인간화에 궁극적 가치를 두면서 전개되어야 한다.

5) 한국 전통문화의 붕괴 현실

오늘날 서양문화의 우월론이나 서구 문화제국주의는 비판적으로 극복되고 있다. 동시에 동서문화와 종교는 서로 깊이 있게 만남으로 상호 창조적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신학에 근거하여 아시아의 풍요로운 문화와 한국의 전통문화가 고유하고도 풍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문화적 유산과 종교적

전통이 지닌 귀중한 자산이 한국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 개신교 초창기부터 파괴되고 멸시되고 부정되어왔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복음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전통문화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하여 한국의 문화적 고유성이 복음에 의해 더욱 높고 깊은 차원으로 승화되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때 문화적 배타주의나 문화의 혼합(混合. Syncretism)은 올바른 기독교의 토착화나 문화신학의 방향이 아니다. 우리 교단은 세계의 고등종교와 그 문화유산이 지닌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을 포용한다. 이때 항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진리와 생명의 빛을 한국문화 속에 성육화시키는 선교적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

2. 1987년 신앙선언

우리는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고 선 모세처럼 오늘의 세계와 민족을 위해 복음을 증언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겸허한 마음으로 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우리는 세계 개혁파 장로교회의 복음주의적 신앙전통을 이어받아 믿음의 조상들이 전해준 신앙고백문들과 신조의 유산들을 귀중하게 전승하면서 교단 새 역사 30여 년 동안 신앙고백과 선교 및 교육정책을 주체적으로 연구하고 「신앙고백서」, 「선교정책」, 「사회선언지침」, 「교회교육정책」을 채택하여 우리의 신앙 노선과 선교지침으로 삼아왔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시대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다. 우리는 항상 새롭게 개혁해 가는 교회가 되기를 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에 응답하여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고 이에 따라 선교 · 교육 · 사회정책을 보완하여 다가오는 교단 새 역사, 희년 50년을 향해 전진하려 한다. 이는 주 후 2000년을 눈앞에 둔 한국교회 선교 2세기의 사명 확인이요,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오늘의 한국교회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우리 교단은 세계교회협의회와 세계개혁교회연맹(장로교)의 형제자매들과 호흡을 함께하면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음과 같이 응답한다.

성령은 성서를 통해 우리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시오.”(롬12:12)

우리는 오늘날 세계 및 한국의 역사와 자연을 덮고 있는 죄와 악, 비극과 위기의 근본 원인을 꿰뚫어 보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다음 네 가지 원리에 따라 파악한다. 우리는 이 원리에 따라 이러고 저러고 삐뚤어진 이 세대의 풍조에 맞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한다.

첫째는 정의의 원리요, 둘째는 사랑의 원리요, 셋째는 평화(샬롬)의 원리요, 넷째는 창조세계 보전(保全)의 원리이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원리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인류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고백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신학의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선교 과제를 밝히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하고자 한다.

첫째, 정의의 원리는 신구약성서 전체를 꿰뚫어 흐르는 성서적 신앙의 등뼈요, 예언자 정신의 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은 인간이 경외해야 할 만유의 주(主)이시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인간의 불의는 폭로되고 바로 잡혀야 한다는 점을 고백하는 것이다.

성서를 꿰뚫고 흐르는 정의의 원리는 자유라는 청실과 평등이라는 홍실이 함께 얽혀 꼬아진 하나의 동아줄 같아서 자유 없는 평등사회 혹은 평등 없는 자유 사회는 성서가 증언하는 참다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님을 깨닫게 한다.

우리는 오늘의 세계사와 분단상황의 한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온전하신 뜻 또한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실현되는 정의로운 인간공동체를 형성하라는 부르심이라고 믿는다. 참된 영적 산 제사는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삶을 통한 예배인 것이다.

둘째, 사랑의 원리는 신구약성서에 증언된 대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심장이다. 성서의 하나님은 곧 인간의 죄를 사랑의 심판과 용서의 화해로 극복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없는 정의의 원리란 율법의 가시는 될지언정 인간을 살리는 복음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기에 죄와 불의는 미워하되 죄인은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갈등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다(요3:17).

셋째, 평화의 원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피조 세계의 목적 원리이다. 정의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피조 세계의 목적 원리이다. 정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곳에 참되고 온전한 평화, 곧 샬롬이 있다. 정의의 원리가 유린당하는 세계에서의 평화란 기득권자의 현상유지를 강변하는 거짓 평화이며, 사랑의 원리가 얼어붙은 공동체에서의 평화란 차가운 기계적 세계의 위장된 평화에 불과하다. 성서가 증언하는 참 평화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사랑이 햇빛처럼 스미는 생명공동체 안에 있다.

따라서 전쟁을 준비하는 군비경쟁과 첨단과학 무기의 생산, 폭력적 힘의 난무 및 숭배 현상, 무차별한 자연 정복과 그에 따른 생태계의 위기, 그리고 강대국 또는 강자가 약소국 또는 약자를 강압적으로 억압하고 구조적으로 수탈하는 불의한 국제질서와 국가 사회구조 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고전13:6),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기에(롬 12:21) 의로우시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 영광의 얼굴이 온 누리에 비취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 힘써 나가야 한다.

넷째, 창조 세계의 보전 원리는 하나님의 태초에 '좋다'고 선언하시고 축복하신 만물의 건강한 아름다움, 선함, 조화, 그리고 온전함을 지키고 키워 가는 일을 의미한다. 창조 세계의 보전이란 하늘과 땅,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지하고 잇대어 살도록 되어 있는 삼라만상의 유기체적인 사회성을 새롭게 고백하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자연 및 생태계의 파괴와 수탈, 물질과 노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 창조 세계를 개인주의적이고 기계론적으로 보는 세계관, 그리고 생명 문화를 파괴하는 이 세대의 모든 풍조에 비판적으로 저항하게 한다. 성령은 만물을 하나로 묶는 사랑의 띠이며 세계의 보전 원리로서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재창조의 능력이시기 때문이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고 온전성을 회복하게 하신다.

이상에서 살핀 정의, 사랑, 평화, 그리고 창조 세계의 보전 원리는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 선교 신학의 기초 원리로 삼아온 '하나님의 선교'신학이라는 총괄적인 신학적 지평에서 실천적인 신앙지식으로 고백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신학이 말하려는 핵심적인 정신은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창조와 구원과 속량의 사역을 행하고 계시다는 고백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

상을 지닌 인간을 적극적으로 부르시어 동역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누어지는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 세계의 운명을 위탁하신다는 성서적 신앙에 대한 책임적 응답이다. 인간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만 하는 피동적인 수혜자로서의 어린아이가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책임적으로 응답하는 능동적이고 성숙한 자녀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 위에서 함께 창조 사역을 펼쳐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으로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를 구현해야 한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앞세워 언급한 네 가지 원리에 입각하여 파악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우리의 신앙선언

우리는 성서가 증언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은총의 약속 안에서 하늘과 땅의 사람을 지으시고, 그 선하시고 뜻과 다함이 없는 사랑의 능력으로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생명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하고 억눌린 자의 친구가 되셨으며, 악의 세력에 맞서 사랑을 통한 저항을 하시다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제3일에 부활하시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인간과 역사와 자연을 속량하시어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화해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자유케 하시는 영으로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할 때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희망을 주시며, 인류 해방의 새 삶을 창조해 가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머니 같은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신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흩어져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세상에서 봉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세계의 평화와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교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종말적인 완성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이 역사의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며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선취한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3. 오늘의 선교와 우리 교단

1)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

예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모든 믿는 자와 제자 공동체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28:19~20)고 명령하셨다. 따라서 교회의 선교 운동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16:15)는 주님의 위대한 명령과 위탁, 그리고 함께하신다는 약속 위에 근거하는 것이다.

첫째, 선교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뜻한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집약적으로 계시된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곧 메시아(구원의 주)이심을 선포하며 알리는 것이다. 따라서 선교란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전도를 그 핵심으로 삼는다.

둘째, 선교란 예수께서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다. 선교란 기독교 진리를 드러내어 널리 떨치게 하는 것이요, 그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쳐 삶 속에서 지키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생명과 삶 속에 육화되지 않은 복음이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몸으로 믿지 않는 고백은 헛된 것이요, 생활신앙으로 고백되지 않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다.

셋째, 선교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사야 예언서를 읽으시며 이 예언의 말씀과 자신을 일치시키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심은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들에게는 눈 뜸을 선포하며 눌린 자들을 놓아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심이라"(눅4:18).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선교란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계시된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것이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며 동시에 믿음·소망·사랑의 신앙을 삶을 통해 구현하도록 사람의 몸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과 자연과 역사 안에 있는 모든 억압과 불의를 몰아내고 사람과 만물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며 하나님 은혜의 축복에 동참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복음은 온전한 하나의 복음이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나 부활 없는 십자가는 온전하지 못하다. 개인구원이나 사회구원이라는 이분법적 발상 자체가 비복음적이다. 복음은 인간 자체를 통째로 문제삼고 심판하며 또 구원한다. 영혼의 구원 없는 육체의 구원, 몸의 구원 없는 영혼만의 구원, 전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회복하지 않은 상태의 개인구원, 그리고 실존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의 개인구원과 중생이 없는 상태로의 사회구조적 개혁과 구원이란 모두 비복음적이다. 우리 교단의 선교신학은 온전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능과 빛을 온전한 선교를 통하여 피조 세계 전체에 성육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과 자연과 역사 안에 있는 모든 억압과 불의를 몰아내고 사람과 만물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며 하나님 은혜의 축복에 동참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 교단의 선교정신은 20세기 들어 세계교회가 자각하고 공동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선교' 신학 정신을 공유한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엡3:15)께서는 이미 구원의 경륜과 뜻을 세우시고 때가 차면 그 계획을 시행하여 '하늘과 땅에 있

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엡1:10) 하신다. 즉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게 하고 아들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 하신다(골1:20).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 신학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선교' 신학은 인류구원의 경륜을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주권이 선행한다는 것과 그 세우신 구원의 경륜은 변함이 없다는 은혜의 약속을 고백한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며, 선교는 태초부터 경륜해오신 하나님의 구원 의지이자 그 뜻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 인간이나 선교 단체의 선교사업보다 이 세계 속에서 태초부터 섭리해 오시는 하나님의 선교행위, 곧 구원행위를 찬양하고 고백하며 그 거룩하신 일에 동참한다는 의식을 갖는다.

둘째, '하나님의 선교' 신학은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 온 세계 만민이요, 모든 민족이며, 국가 · 성별 · 민족 · 이념 · 종교 · 문명의 차이를 넘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려 한다고 고백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 신학은 기독교의 교세 확장이라는 좁은 개념을 넘어선다. 하나님의 구원 관심은 온 세상 만민이며 하나밖에 없는 지구 위의 인류이고, 또 하늘과 땅을 몸 속에 교차하고 있는 인류 그 전체이다. 또한 하나님의 선교 신학은 이 세계와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경륜 속에서 총체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좁은 종파주의나 교파주의를 초극하려고 한다.

셋째, '하나님의 선교' 신학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사명과 그 존재 의미를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맥락에서 파악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교회주의와 교권주의를 극복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계 속에 두시는 것은 교회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세계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계를 섬기는 위해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만물이 새롭게 거듭나는 영광의 그 날에는 성전 곧 교회는 사라지게 되는 구원의 순례자 무리요 구원의 방주임을 우리는 고백한다. 따라서 교회는 새로운 인류의 몸을 형성함에 있어서 그 머리요 심장이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지체가 각각 그 분량에 따라 활동하는 대로 마디마디 공급을 받아 단단히 결합되고 서로 어울려 몸이 자라 사랑 안에서 몸을 세워가도록'(엡4:16)돕는 것을 그 과제로 삼는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신학이란 정의의 원리, 사랑의 원리, 평화의 원리, 창조 세계의 보전 원리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인간의 삶 속에 구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가도록 하는 신학인 것이다.

2)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교회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백성들의 회중 공동체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공동체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곳에선 복음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성례전에 올바로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그곳에선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거듭난 성도들의 사랑의 사귐이 항상 생동해야 하며, 은혜와 진리의 권능과 그 빛이 밖으로 확산되어 세상을 돕고 섬기며 봉사하는 일이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이 세계와 인류가 그리스도의 신비한 우주적 몸으로 수렴되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 곧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 가는 과정(엡4:1~16)에서 그 머리와 심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머리와 심장이 병들거나 약하게 되면 몸이 죽게 되듯이 교회가 약해지거나 병들게 되면 이 세계 또한 죽게 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모든 사람은 선한 이나 악한 이에게 모두 햇빛을 고루 비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계의 삶 한복판에서 부름을 받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양심과 영혼의 귀를 통하여, 그리고 인간성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죄악으로 인하여 너무 깊이 흐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으로 병들어 어둠에 싸여 있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

교회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된 이스라엘을 말한다.

3)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진리의 증언자요, 그 화신인 것처럼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사랑과 진리의 화신으로 서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낮은 자들과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들의 친구이셨듯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건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고 증언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주께서 모든 죄 많은 사람과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롭게 갱신시키며 또 꾸짖어 회개시킨 듯이 모든 만민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또한 빈부귀천이나 성별 혹은 사회적 차별을 넘어서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주위에 그 사회의 죄인들과 낮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듯이 겨레의 작은 사람들이 기쁘게 찾기 쉬운 '선한 사마리아인의 집'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만민을 위하여 언제나 개방되어야 하고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민과 민중 어느 한쪽을 어느 시점에서 선택적으로 사랑해야 할 적엔 예수님의 정신대로 양 아흔아홉을 두고 하나를 찾아 나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만민의 교회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역사적 삶의 상황 속에서, 갈등을 겪으며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즉 정의가 짓밟힌 사회 공동체 속에서는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단호하게 약자와 눌린 자와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수행하는 민중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정의, 사랑, 평화, 창조 세계의 보전을 위하여 인간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여야 하기에 현대사회의 풍조인 개인주의적 사고, 물질 만능의 바알신앙

적 사고, 명예욕과 자기 독선에 빠지는 바리새인이 사고, 권위주의적이고 파당적인 사고 등이 독소처럼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교회의 정결을 지켜 가야 한다.

4) 계약 공동체로서의 교회

의로운 선교사역을 해온 새 역사 창조 30여 년 동안 우리 교단은 선교 정책의 측면에서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오해를 교단 안팎으로부터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예언자적 사명을 다하느라 힘쓰다 보니 신도 각자의 내적인 영성훈련 곧 깨어 기도하고 항상 감사케 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나, 또한 파송하며 흩어지는 선교공동체의 사명을 강조하느라고 힘쓰다 보니 열심히 모으고 전도하여 새 신자 얻는 기쁨을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고 속단하지는 않았나 반성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선교 신학을 강조하느라 힘쓰다 보니 개교회의 중요성 및 성장과 관리에 소홀한 인상을 남기지 않았나 겸손히 반성한다.

하나님의 선교 신학은 교회의 참다운 본질과 세계 내에서의 선교사역 및 책임을 바르게 강조하고 밝힌 것이지 결코 개교회의 중요성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다. 우리 교단은 신앙의 조상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교회는 거룩하고 하나이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전승을 이어오는 구원의 집이요, 하늘과 땅의 비밀을 간직한 곳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천국열쇠를 가진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는다(골1:24~29, 마16:19).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땅 위의 각 지역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선교와 하나님의 구원행위의 범례적 초점이며 복음의 전진기지요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 그 전위대임을 확실히 고백한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있다. 불은 열과 빛을 내면서 타오를 때 붙일 수 있듯이 선교의 거룩한 정열에 불붙어 있는 교회일 때에만 살아있는 진정한 교회일 수 있다. 따라서 먼저 교회가 생존하고 나서 선교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산의 일정 분량을 우선적으로 선교에 바치도록 결단하여야 한다.

오늘의 선교 신학은 인간화 지향의 선교, 민중 지향의 선교, 미래지향의 선교, 통일지향의 선교, 평화지향의 선교, 그리고 영성적 생명공동체 지향의 선교를 그 내용으로 담지해야 한다.

파송하고 흩어져 온 세상을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으기에 힘써야 하며 또한 세속 한복판에서 일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깊은 영적 기도와 명상, 성도의 교제와 은혜의 비밀 훈련에 더욱 힘써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인간 개인의 품성과 인격, 그리고 그 영혼의 건강이 사회구조적 삶과 불가분리의 상관관계 및 순환 관계 속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개인 영혼의 중생과 구원체험의 확실성 못지않게 사회의 구조적 갱신 곧 인류공동체 사회적 거듭남과 구원 문제가 똑같이 중요하며 동시에 수행되어야 함을 확신한다.

5) 우리 교단의 자기 정체성

우리 교단의 자기 정체성은 성서가 증언하는 참된 교회의 본질과 기능을 한국적 삶 속에서 올바르게 구현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첫째, 우리 교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주는 자유의 은총을 굳게 지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라디아 5:1)는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 따라서 우리 교단은 신앙양심의 자유와 진리 탐구의 자유를 귀중하게 간직하면서 개혁파 교회의 신앙전승을 창조적으로 계승한다. '자유전승'은 본 교단의 첫째가는 정신이다.

둘째, 우리 교단은 신구약성서의 중심 주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확증된 예언자적 전통을 이어가는 인간해방 전승을 굳게 지킨다. 예언자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인 해방전승은 인간의 공동체적 삶이 정의 · 사랑 · 평화(샬롬) · 창조 세계의 보전 속에서 영위되기를 추구하는 사회 정의와 복지로서의 정렬을 동반한다. 우리 주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복음의 본질과 우리 교단의 길을 제시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사61:1~2, 눅4:16~19).

성서적 종교는 예언자 전승뿐만 아니라 제사 전승과 지혜 전승과 다른 다양한 전승을 가지되 예언자의 해방 전승이 성서적 종교의 중추임을 우리 교단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와 함께 다른 전승을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한다.

셋째, 우리 교단은 앞에서 언급한 자유 전승과 해방 전승의 기반 위에서 자립정신을 세우고 지켜 간다. 신학 사상의 자립, 신학교육 및 교회의 경제적 자립, 동서 정치 · 경제적 이념의 예속으로부터의 교회의 독립, 그리고 경제적 문화적 자기 주체성을 추구해가는 것이다. 우리 교단의 자립정신은 정치적으로는 민족 통일을 향한 민족 주체적 자립정신으로, 문화적으로는 서구 문화와 유산을 창조적으로 수용하되 아시아 문화유산과 민족문화유산의 올바른 계승을 통한 민족문화의 자립정신으로 꽃피게 한다.

넷째, 우리 교단은 세계교회와 인류공동체와 연대적 협동과 개방성을 추구한다. 에큐메니컬 정신은 유기체적 창조 세계와 온 인류의 창조적 공동체를 참조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선교 신학은 개신교의 형제 교회들, 가톨릭교회, 세계 고등종교, 그리고 선한 뜻을 지닌 모든 인간과의 협력을 추구한다.

다섯째, 우리 교단은 인류 역사와 민족사의 전환기에 서서 때의 징조를 식별하고 교회의 철저한 회개와 새로운 경신을 단행하여 중생하는 교회, 겸손한 교회가 되고자 한다. 일체의 명예욕, 권력욕, 물질욕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이름만이 존귀하게 드러나도록 죽고 다시 부활해야 하는 것이다.

4. 교회선교 정책

오늘의 선교현장은 우리로 하여금 다양하고 전문적인 훈련과 준비를 갖추고 선교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선교현장의 현황과 문제 발굴 및 그 해결을 위해 인접 학문의 연구 방법 및 결과를 활용하고, 전문가의 식견과 그리스도 교회 안에 무한하게 잠재되어 있는 평신도들의 전문지식을 총체적으로 동원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에 우리가 처한 선교 현장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아래에 열거하고 그에 따른 선교정책을 천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선교정책은 구체적 상황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선교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만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회나 시찰위원회 혹은 개교회가 각기의 선교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창의적으로 모색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1) 전도와 개척교회

교회의 선교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모든 믿는 자와 제자 공동체에 주신 선교의 명령과 위탁, 그리고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에 근거한다(마28:19~ 20, 막16:15).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집약적으로 계시된 '구원의 도'를 전해야 하며 예수께서 명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교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다른 종교를 신앙하고 있는 타종교인에게도 정복적인 자세가 아닌 증언의 자세로서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한다.

개척교회 운동은 한국 사회의 인구 이동에 선교적으로 대응하는 측면과 복음전도의 사명을 수행하는 측면 모두를 감안하여 추구되어야 하고, 본 교단의 하나님 선교를 위한 3,000 교회 운동은 교단이 함께 고백하는 신앙고백선언 및 하나님의 선교 신학의 빛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2) 도시 선교

'도시 선교'라 함은 도시화 되어 가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배경으로 마을 문화가 아닌 도시 문화의 구조가 개인의 삶을 지배하거나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선교상황에서 선교적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도시 문화는 인간성을 소외시키는 위기 및 새로운 인간성을 개발할 수도 있는 창조적 가능성 모두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1) 도시 문화의 강점인 다양성, 개방성, 기동성, 접촉성, 합리적 효율성 등을 십분 활용하여 개인적으로나 사회 공동체적으로 인간의 자기실현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도시 문화가 담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보다 적극적,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그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이와 동시에 도시 문화가 지닌 또 다른 위험과 약점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이를 극복할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도시 문화의 대중성 때문에 오게 되는 개성과 의미의 상실 및 무력감과 고독감의 문제, 개인주의의 팽배에 따른 문제, 소비성향과 몰가치적이고 깊이 없는 기능사회가 던져주는 문제, 자연과의 유기체적인 조화(혹은 일체감)의 상

실 문제,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정신 건강에서 오는 과잉적 자기방어 본능과 공격 본능의 순화 문제, 그리고 집단적 군 생활의 주거 환경에서 오는 생활패턴의 단조로움과 제약적 환경 문제 등 도시 문화가 안고 있는 약점들을 정확하게 보고 그 속에서 삶의 놀라움, 감사, 감격, 새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서 및 능력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3) 또한 도시민의 삶은 노동자, 농민, 어민 등 이 사회 구성원 전체와 유기적 연대구조 속에서 영위됨을 인식케 함으로써 삶의 공생적 유대감을 상실하지 않도록 도와야 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3) 도시빈민 선교

도시 문화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인간의 죄악성이 빚어낸 결과적 산물로써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대도시 주변의 빈민 소외계층을 만들어낸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자본주의 사회구조 자체가 지닌 구조적 약점과 모순, 도시정책의 빈곤 혹은 전시효과만을 노리는 도시정책의 허구성, 그리고 특권계층의 정치, 경제적인 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도시빈민은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도시빈민의 문제를 선교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도시빈민을 위한 선교과제를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 분석 및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사회구조적인 역학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이에 적절한 예방조처 및 해결정책이 교회의 총체적 목소리로 제시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도시빈민 선교는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진 종사자들만의 과제가 아니다. 따라서 도시빈민 선교는 도시교회 전체의 선교 과제임을 인식케 도와야 하며, 도시빈민 계층의 최소한 기본생활 대책, 교육 및 의료 대책, 의미 있는 직장에의 고용증진 등을 통한 인간다운 삶이 이루어지도록 선교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선교 노력이 수행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봉사가 이루어지는 선교 현장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신앙고백과 신앙공동체가 형성된다면 그것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용하는 폭넓은 선교적 이해가 요청된다. 이 점은 다음의 노동자 선교, 농어민 선교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 노동자 선교

산업선교란 현대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되어 가면서 파생되는 노동문제에 대한 선교신학적 접근, 근로 대중들이 올바른 권리와 의무를 갖게 하며 노동이 단순한 노동력을 파는 행위 즉 임금 노동자가 제공하는 생산력의 단계에 머물지 않고 노동행위를 통해 참다운 인간의 자아실현까지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선교적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인 경제생산 구조 속에서 자본가 및 기업경영가의 자본, 생산수단, 노동력의 투입을 통한 최대이윤의 추구가 자기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노동력을 파는 임금 노동자의 이해관계와 충돌되어 갈등적 대립관계를 지속해 왔다.

그동안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의 생산관계와 노동운동은 오랜 경험과 투쟁과 노력을 통하여 다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오늘날 선진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보험 단계를 거쳐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하는 산업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선교 영역에서의 교회의 선교과제는 자본가와 노동자 쌍방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개인적 혹은 집단적 이기심과 무제한적 욕망을 합리적인 조직과 힘의 균형 및 견제의 원리를 통해 적절히 견제하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절대 계명을 정의로운 인간조직 사회의 구현을 통해 근사치 적으로나마 실현해 보려는 사회 윤리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산업선교의 과제는 뒤늦게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한 후진 산업사회에서 선진 산업자본주의 사회가 경험한 노동문제의 쓰라린 아픔과 상호 파괴적인 상처 및 실패를 최소화하고, 기업가 · 경영가 · 노동자 · 국민이 함께 살아간다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는 실현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회는 인간의 이기심과 죄악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개인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함과 동시에 집단관계의 특수성, 곧 힘의 구조적 균형원리를 항상 모색해야 한다. 물론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경우 교회는 약자 집단을 도와야 한다. 물론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경우 교회는 약자집단을 도와야 한다. 이때 교회는 사회주의 계급투쟁원리에 기초한 폭력적 힘의 행사를 쌍방이 절제하도록 해야 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 해결을 접근할 수 있도록 교회 자체가 강력한 중간 집단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교회는 노동문제가 사회 전체의 공동문제임을 사회교육을 통해 계몽해야 하고, 특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자발적인 노동조합 결성과 그 교육과정을 도와야 한다. 아울러 산업선교의 소명을 안고 직접 노동운동과 노동에 참여하는 선교동역자를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 또한 오늘날 산업사회 속에서 보다 효과적인 산업선교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학적, 기독교 사회 윤리적 방법론의 연구도 계속해야 할 것이다.

5) 농어민 선교

오늘날 한국의 농어촌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은 국민경제 전체의 사생활과 민족의 동질성 및 공동체 의식 존폐문제와 직결될 만큼 심각한 상태이다. 농·수산업 특히 농업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부분이며 한 나라 경제발전의 기초인 동시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식량과 천연자원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의 지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저곡가 정책, 농어업 부분에 대한 공동투자의 부진, 농업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경제성장 자체가 멈추거나 왜곡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농어촌 사회의 문제는 인간의 아픔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하는 교회의 우선적 선교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농어촌 선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는 한국 농어민의 문제, 즉 빈곤, 부채, 문화적 낙후성, 폐쇄적 배타성 등의 문제가 거의 모두 사회경제구조 자체가 안고 있는 정책적 불합리와 부정의에 기인하고 있음을 사회과학적으로 인식케 함으로써 농민 스스로가 사회운동을 통하여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인간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농민들의 희생에 근거한 농축산물 가격정책의 변혁, 무책임한 잉여 농축산

물의 수입에 따른 농촌 피폐 현상의 타파, 각종 비민주적인 협동조합과 어용·관료적인 지방행정의 민주화, 부재지주의 급증에 따라 늘어가는 소작제도의 개선, 문화 · 교육 · 의료부문에서의 보험제도의 실현, 그리고 농민운동의 법적 보장확보 등의 선교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농어민 선교의 일차적 과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농촌 지도자의 지도력을 개발하는 일,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 그리고 농어촌 사회에 편만해 있는 비인간화 현상을 해소하고 자유 · 평등 · 평화의 농어촌 사회를 이루어 농어민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려고 노력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민 선교의 과제는 단순히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향상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따라서 농어민 선교의 이차적 과제는 한국의 농어촌 촌락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새로운 정립을 돕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 각종 무속신앙과 미신적 사고를 극복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가부장적 가족 단위의 생산양식에 훈련되어 형성된 혈연 공동체의 수직적 인간관계를 극복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공동체 윤리의식과 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리고 소비 지향적인 도시 문화의 농어촌 침투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 등 선교적 과제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농어민 선교의 삼차적 과제는 농어민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여 복음의 자녀가 되도록 선교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 지역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신앙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의 빛 아래 그들의 사명과 문제들을 풀어 가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6) 문화 및 매스컴 선교

문화는 인간공동체가 추구하는 궁극적 관심이 표현된 형식이다. 기독교 한국선교가 시작된 지 1세기가 지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교 진리가 내포하고 있는 인간 구원의 진리를 정치, 경제, 사회, 법제, 예술 등의 문화 형태로 구현해야 하는 선교 제2세기를 맞고 있다.

한국은 종교적 다원사회이다. 따라서 교회의 선교는 한국 전통문화의 핵을 이루었던 불교, 유교, 천도교 등 타종교와 만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타종교가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인간의 성숙과 인간화를 위해 공헌했음을 인정하며, 타종교 고유의 구원체험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타종교 속에 내포된 고귀한 진리와 영적 유산을 존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되심을 고백하고 전하는 데 힘써야 하며, 우리 국민의 평화, 자유, 인간화를 위해 선한 의지를 가진 타종교인들과 개방된 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

성서가 말하는 샬롬은 건강하고 평화로우며 자유 및 공의가 모두 실현된 삶의 형태를 의미한다. 특히 좁은 의미의 문화 혹은 문예활동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 인간관 등을 예술, 문화적으로 표현하고 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기독교 문예인들의 창조적 활동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문화선교적 과제는 사상, 문학, 음악, 미술, 조각, 건축, 연극 등 각종 문예활동을 통해 복음의 본질이 표현되도록 하며 문예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건전한 대중문화는 극소수 독점적인 귀족 문화나 고급문화보다 훨씬 미래 지향적이며 개방적인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교회는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 건전한 대중문화의 창달을 위해 그 지원세력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저급한 상업문화의 확산과 문화예술의 정치예속화를 막기 위해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 또한 문화의 세계적 보편성과 지역적 고유성 사이의 갈등을 문화선교적 측면에서 그리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창조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한국문화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통해서 세계적 보편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인쇄문화는 오랫동안의 인쇄매체 발달과 특히 전차, 전파매체의 출현으로 대중전파 매체를 통한 소위 문화혁명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신문,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대중 전달매체의 인간화와 이를 통해 대중문화를 끊임없이 깊이 있게 승화시키는 선교 신학적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회는 사회적 측면에서 대중 전파매체가 인간의 소비성향을 자극하거나 향락적이고 관능적인 저급문화를 매개하는 독단을 부리지 못하도록 매스컴을 감시해야 하고, 더 나아가 대중전파 매체를 국민의 감독 아래 두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야 한다.

7) 학원 및 병원 선교

개화기 한국의 그리스도교는 현대 교육과 의로 부문의 산실이었으며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면서 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을 치유하였다. 이 중에서도 학원선교는 기독교교육 이념으로 설립한 사학기관과 일반학교라는 두 측면에서 진지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학원 선교의 기본 목적은 학생과 교사로 하여금 기독교적 진리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내면화하여 한국 사회 각계각층에서 평신도로서 공헌케 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학교 자체를 보다 민주적, 개방적,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특히 교리 주입이나 성경 구절 암기식의 강압적 종교교육을 지양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인간에게 복된 소식이며, 가장 매력적인 진리임을 확신해야 한다. 이러한 확신을 학교교육 제도 자체가 비인간화되어 사회조직의 부품으로서의 인간만을 양산해 내는 현실을 타파하고 바람직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교육과정과 교육제도 등 교육자체를 인간화시키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경주해야 한다.

병원 선교 부분에서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고찰해야 한다. 먼저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위해서는 영육의 통일체인 그들이 병원 선교 종사자와 목회상담, 신앙상담, 치유적 대화를 통해 인간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치유를 체험하도록 도와야 한다. 의료인들을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와 사무원 모두가 가장 고귀한 생명을 치유하고 돌보는 과업에 봉사한다는 긍지와 책임감을 갖도록 하여 생명을 경외하고 의술이 인술이 되도록 하며 의료 과정 전체가 보다 인간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8) 군대사회와 경찰사회 선교

우리는 군목제도와 경목제도의 도입, 그에 따른 군목 및 협동경목의 활동을 통하여 이 나라 젊은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며 이 땅의 복음화에 최선을 다해 왔다.

군대사회는 한국의 분단현실 속에서 가장 특수하면서도 그 규모가 큰 집단 사회로 이곳에서도 올바른 선교가 한국의 미래 사회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한 구성단위이다.

군목은 군대 내에서 위계질서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켜야 하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초월적인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하며,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진리로 모든 사병과 장교 및 지휘관들의 모범과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군대라는 계급사회에서 신앙지도, 목회상담, 인격교육 등 전문적 기능을 충실히 감당하여 군대라는 특수사회가 비인간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목은 교도소와 유치장 등의 선교현장에서 주어지는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되 경찰 및 공무원들의 신앙지도와 상담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인간구원의 사도적 사명을 계승한 자로서 품위와 성실을 항상 견지해야 한다. 특히 법은 어긴 범법자에 대한 판단과 계도는 정의·사랑·평화 그리고 창조 세계의 보전 원리에 입각하여 수행해야 하며 그들을 선도하려는 노력을 특별히 경주해야 한다.

9) 신체장애인 및 요 보호 대상자 선교 등 특수선교

특수선교란 선교방법과 선교대상과 선교지역이 갖는 특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문화된 선교활동이라고 말해야 한다. 노인을 위한 선교, 무의탁 은퇴교역자에 대한 대책, 맹아 및 맹인사회를 위한 선교, 농아 및 농아 세계를 위한 선교, 정신박약아 선교, 지체 부자유인들을 위한 선교, 미혼모와 그 영아들을 위한 대책, 사랑의 전화를 통한 상담선교, 청소년 상담선교,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일하는 각종 봉사직 종사자들을 위한 선교계획 등이 여기에 속한다.

교회는 특수선교 종사자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재정 및 인적 자원의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또한 특수선교 종사자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끊임없이 연구·개발하며 인내와 기쁨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어감에 따라 선교영역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특수한 선교지역, 선교대상, 선교영역에 대한 보다 전문적 훈련과정이 필요하며, 특수선교 요원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그들의 선교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신체 장애인들이 당하는 인권 박탈과 제약의 해소는 시급한 선교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신체 장애인들이 사회복지 시설과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사회복지정책을 개발하여 신체장애인의 의식주 생활과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사회 교육적 차원의 계몽, 선도적 복지사업의 시행, 전문적 복지정책의 연구 및 제시를 서둘러야 한다.

10) 세계선교와 해외교포 선교

우리는 복음을 전해 받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교단적 힘을 집결하여 복음 선교사를 유럽, 북남미, 아시아 제국, 아프리카 제국, 대양주 등에 파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선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난 세기 서구 기독교 선교사들이 견지했던 문화제국주의적 자세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선교 신학이라는 신학적 관점에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외 교포 사회를 위한 선교는 새롭게 대두된 선교영역이다. 문화전통, 사회제도, 언어, 관습이 다른 세계 여러 나라로 이민 가서 기독교 신앙을 견지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수백만 명의 해외교포들은 새로운 상황에의 성공적 적응과 정착, 문화적 충격의 흡수, 한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이민자로서의 가치관 사이의 갈등, 해외 이민 2~3세들의 신앙지도 문제 등을 위해 유능하고 전문적인 교역자 및 선교사를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교단은 '세계는 우리의 교구'라는 심정으로 세계선교와 해외교포 선교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1) 국내외 교회간의 선교협력과 선교동역자들

신비하고 영성적인 생명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지체들의 활동적 참여와 협동'(에베소서 4:16)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희망도 하나이다.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며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에베소서 4:45).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일하시고 만물 안에 계신다(에베소서 4:6).

새 시대의 하나님 선교는 국내외 모든 선교 단체와 기관, 교단과 교회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절대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본 교단은 에큐메니컬 정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특히 선교협력은 동반자적 자세로 견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단 간의 선교 협력 및 정보교환, 유기적 조직체의 구성과 운용, 그리고 해외 각국의 선교단체 및 교단과의 선교협력 체제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제3세계의 여러 교회 및 역사적 공통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아시아 교회들과의 연대 및 일치를 모색해야 한다. 이는 세계열강의 정치·경제적 지배전략과 그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해 나감에 있어 불가결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국내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동역자들은 같은 형제요 동역자들이다. 따라서 한 마음과 도시 안에서 교파를 초월한 공동예배와 선교활동을 협력하고 우리의 힘을 효율적으로 규합하여 함께 선교사업을 전개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여러 교회가 선교의 공동 전선을 형성해야 하며 아울러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의 선교 자매결연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효율적인 선교전략의 수립과 활동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선교 지도력을 육성할 것과 선교신학 교육 및 이론적 실천적 훈련을 강화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이에 우리 교단의 전 교회와 교인은 최저 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선교 일선에서 봉사하는 선교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선교비를 모아 보람 있는 선교사업에 진력해야 한다.

12) 선교구조의 조직갱신과 선교 능력의 개발

'하나님의 선교'로서의 오늘날 선교활동은 선교신학을 훈련받은 전문적인 성직자 혹은 전문인들의 독점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참여해야 하며, 한국기독교의 일천만 성도들이 잠재적인 능력과 전문지식을 개발하고 조직하여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선 교회는 여성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여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헌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장치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여성은 하나님의 구원 심성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 있다. 따라서 남성 문화의 막다른 골목에서 여성의 참여와 공헌은 다음 세기 본 교단 선교사업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에게 보다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활동 및 참여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그 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미래 사회와 교회의 주역인 청소년의 참여와 선교활동의 개발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개발된 잠재적 힘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참여와 비판과 토의에 초대되어야 한다.

교회의 각 기관과 노회 및 총회의 모든 기구, 그리고 각종 제도 및 전문위원회 등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그들의 경험, 지혜, 통찰력, 전문지식 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발되고 민주화되어야 한다.

교회는 이미 한국 사회 안에서 이 땅의 역사와 미래를 창조적으로 선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능력을 지닌 최대 조직단체가 되었다. 이제 한국교회는 한국민을 교육하는 장이요, 동시에 역사의 방향을 이끌어가야 할 향도자가 되었음을 직시하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

5. 사회선교 정책

1) 정의와 평화공동체 지향적 선교

인간은 개인이면서 동시에 철저히 사회적인 존재이다. 특히 현대사회를 사는 인간의 삶은 정치·경제·문화 등 3대 영역의 구조적 역학관계 속에서 규정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개인과 집단의 가치관과 사고의 지평도 그들이 처한 삶의 자리와 환경에 의해 결정적으로 제약받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들이 형성하는 공동체적 삶은 정의의 원리, 사랑의 원리, 평화의 원리, 창조세계의 원리에 의해 끊임없이 심판받고 갱신되며 항상 새롭게 재형성되어야 한다.

우리 교단의 사회선교가 지향하는 기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사랑의 절대 계명을 근간으로 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화로운 유기체적 인간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사회선교 정책의 기본적인 신학적 관점은 인간의 사회성과 개체성에 대한 동시적 인식에 근거한다. 즉 인간의 내면세계에 엄존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란 불가분리

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다.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은 동전의 앞 뒷면과 같다. 따라서 불의한 사회구조와 체제 및 그 제도로부터의 참된 해방없이 인간 내면세계의 참된 해방이란 불가능하며 비성서적이라고 확신한다. 반면에 참된 개인의 구원없이 사회 구원도 있을 수 없다고 믿는다. 결론적으로 참된 개인의 구원없이는 사회 구원도 있을 수 없고,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2) 민중지향적 사회선교

하나님의 선교신학에 기초한 우리 교단의 사회선교는 성서의 해방 전승, 예언자 정신, 율법의 약자 보호법, 예수의 삶의 자세 등을 계승한다.

교회는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사회의 민중, 특히 제3세계의 민중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과 억압과 수탈과 비인간화를 강요당해 왔는지를 정직하게 직시해야 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교회가 민중의 고난과 한을 민중의 편에 서서 대변하는 대신 민중을 억압해 온 편에 종 노릇해 왔던 죄를 참회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선교신학과 우리의 선교 정책은 소위 역사적 계급투쟁론이나 유물사관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적 현실 속에 하나의 실재로 엄존하는 민중의 실체를 보면서, 우리는 민중의 편에 서서 민중의 온전한 해방과 인간화를 위해 우리의 선교 능력을 집중해야 한다.

3) 사회 이념의 선도

복음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복음은 영원히 살아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인간 역사의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규범이요 그 판단의 척도가 된다.

그러나 영원하고 초월적인 복음이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 속에서 구현될 때 복음은 일정한 역사적 형식과 제약성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영원불변의 신학 체계나 보편타당한 사회 윤리적 체계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사회선교를 전개함에 있어 인간 역사의 이데올로기와 전략적으로 협동하며 함께 일할 수 있다. 물론 이때 이데올로기가 갖는 기능과 역기능, 그 능력과 한계를 충분히 인식해야 하며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대처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인간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유기체적인 창조적 인간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이데올로기와 대화하고 협동하며 공역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와 우리 자신의 정체성(본질)을 일치시키지는 않는다.

그리스도교의 사회정책의 기저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경제 이념 속에 내포된 창의성과 자유의 요소를 귀중하게 여기는 흐름이 있는 동시에 사회주의의 정치·경제 이념 속에 내포된 인간의 사회성 인식과 평등의 요소, 곧 정의의 원리를 관철하고자 심혈을 기울이는 휴머니즘적인 정열 또한 귀중하게 여기는 흐름이 있다.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 공동체를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최대한

신장시키며, 경제적으로는 부를 정의롭게 배분하여 모두가 함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치·경제 체제라 할 수 있다. 즉 우리의 사회정책은 정의, 사랑, 평화, 창조 세계의 보전 원리 아래에서 자유와 평등이 동시적으로 확보되는 사회를 추구한다. 이는 정의가 깃든 평화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다.

4) 세계 패권주의의 군사·정치·경제 지배체제의 극복

기독교의 십자가 진리는 인간의 죄악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무한한 욕망, 지배권력을 향한 의지, 오만한 불신앙 등으로 병들어 있다. 이러한 인간의 죄성이 집단적인 형태인 제국주의와 강대국의 패권주의 및 신식민주의로 나타나는 역사적 현실을 냉철히, 그리고 주체적으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어둠과 죄악의 역사로 점철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과 소련을 위시하여 일본과 유럽 선진 산업국가들은 그들의 국민이 지닌 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탐욕, 권력욕, 지배욕 등에 의해 비도덕적인 집단적 이기심을 이 역사 속에 여지없이 노출하고 있다. 특히 끝없는 무기개발과 군비경쟁, 군수산업과 무기 수출산업의 장려, 핵무기의 생산 및 설치, 그리고 약소국가들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면서 자행하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지배와 억압 등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교단의 사회선교 정책은 이러한 현 세계질서의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하나님 정의의 이름으로 비판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 전 인류와 함께 증언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5) 남북한 분단 현실의 극복

우리는 제1장에서 오늘의 선교상황을 분석하면서 한반도의 분단현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아보았다. 우리는 분단현실을 고정화 내지 기정 사실화하는 것에 저항해야 하고, 한반도를 국제 군사전략상의 최전선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분할통치 내지 지배하려는 모든 열강들의 비인도적이고 집단적인 이기심과 그 패권주의를 물리쳐야 하며, 이에 야합하려는 국내의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항거해야 함을 알았다.

한반도의 통일은 외세와 남북한 사회의 특권계층이 주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삶을 이어갈 이 나라의 실질적인 주인인 전 국민과 민중의 주체적 결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이들의 결단과 힘에 의해 화해와 평화적 통일의 대도가 뚫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민간단체의 평화·통일 문제연구와 이에 대한 토론 및 협의회가 자유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고, 분단 40여 년간 차단되고 왜곡되어 온 남북한 현실에 대한 정보가 사실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져야 하며, 평화·통일 문제와 관련된 국내외 모든 자료들을 자유롭게 열람 및 연구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안보상의 이유와 사회안정 질서를 빙자하여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민중의 알권리, 읽을 권리, 말할 권리, 연구할 권리를 제약해 온 남북한 권력계층이야말로 분단을 고정화시킨 채 자기 집단의 이익을 영속화시키고자 하는 반민족 세력집단임을 인지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남북한 정치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비판하고 극복하면서 우리 민족이 함께 살고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제3의 평화와 화해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화해를 보장하는 현실적 장치를 전제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남북한에 설치된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 및 군사시설을 철거 내지 감축해야 하고 외국 군대도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하며, 남북한의 군사력을 동시적으로 대폭 감축하거나 소멸시켜 군사비로 소모하는 재화와 정력을 평화공동체의 창조에 선용해야 한다.

6) 폭력 사용의 죄성과 신앙적 결단

오늘날 이 세계의 현실 속에 폭력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의 죄성을 폭로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상황적으로 폭력적 수단을 활용하는 문제는 그 누구도 구체적 상황에 앞서 원론적이거나 규범적으로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정의를 위한 교회의 투쟁은 비폭력적이어야 한다는 정통 교회의 신학적, 선험적 가치판단은 관념적이거나 비신앙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특히 역사적 현실이 정의롭지 못하고 고통과 모순과 비인간화를 조장하는 상황일 때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기득권자들의 합법적인 폭력 혹은 제도적인 폭력에 기인하는 것일 때, 불의한 폭력 제거의 수간이 평화적이어야만 한다는 논리는 기득권자들의 체계적 폭력과 제도적 폭력을 정당화 내지 지속시키는 논리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우리의 사회선교 과정에서 폭력적 수단의 활용문제는 그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상황 윤리적 책임윤리사항이다. 보다 더 큰 악과 불의를 제거하여 수많은 인간의 귀중한 생명과 인권을 구원해야 하는 경우 폭력 사용의 신앙적 모험과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 상황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사용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폭력 사용 자체를 의롭다고 주장하지는 못한다는 사실 역시 인지해야 한다.

7) 교회의 정치적 발언과 정치 참여

보수적 성향이 강한 한국교회는 소위 말하는 '순수한 복음'의 보존을 위해 교회의 정치참여를 주저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복음 이해이다. 그들이 말하는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은 몸 없는 정신만의 관념적 복음이든지, 아니면 현실을 떠난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종교 심리적인 일거리를 순수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일 것이다.

종교와 정치, 신앙과 정치 참여라는 것은 한 시민으로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신앙인으로서도 동시에 수행해야 할 의무이며 또 권리이다. 이 양자의 관계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살아 움직이는 심장의 좌우 심방처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구성요소이다.

성서는 하나님의 세계정치를 기록한 책이다. 물론 교회가 특정 정치 정당과 같이 정권욕이나 정책 실현을 근본 동기로 삼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삶과 역사적 현

실이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영역의 유기체적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우롱당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조롱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귀와 인간 존엄성의 파수를 위해 정치 참여적 발언과 행동을 통해서 산 제사, 곧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불의가 지배하는 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정치적 침묵이나 중용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 자체도 불의한 정권과 제도를 옹호하는 반역사적이고 비신앙적 정치 참여임을 깊이 인지해야 한다. 또한 교회의 비정치화는 복음의 비역사화와 같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타락시키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6. 교회교육 정책

오늘날 우리 민족은 대내외적으로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서로 사랑하는 정의로운 사회 공동체로, 대외적으로는 자주적인 민족으로 살기를 열망하며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로운 사회와 자주적 민족의 형성을 기반으로 하여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된 민족으로, 그리고 평화공동체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면서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공존해야 할 유기체로 받아들여 자연과의 평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민족의 염원과 노력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과정에 부족한 점이 많았으며, 더욱이 부정적인 역할까지 수행해 왔음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교육의 부정적 역할이 그 방법의 측면에서보다는 그 목적과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기인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반학교 교육은 극단의 개인 출세주의와 기회적 경쟁주의를 조장하여 불의한 사회 체제를 유지시켜 왔으며, 정치 도구화된 반공이데올로기를 주입함으로 분단 고착화와 남북한 적대화를 심화시켜 왔고, 서구 문화를 절대화하는 대신 우리의 문화를 천시하고 압살함으로 말미암아 문화적 식민주의를 자행해 왔고, 발전과 성장이란 미명 아래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수탈하는 것도 방조해 왔다.

교회 교육은 교회와 세상을 이원화시킨 분리주의적 신앙에 집착하여 불의한 학교교육을 보면서도 그것은 우리의 과제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교회만을 위한 교육을 시행해 온 잘못을 범했다. 또한 참다운 성서적 신앙교육을 하기보다는 서구 신학과 그 교리를 정통화하여 그대로 답습함으로 서구 문화를 절대화하는 가치를 심어 왔다. 이를 통해 서구문화 속에 내포된 비성서적 가치관인 개인주의와 정복주의까지도 신앙인 것처럼 교육함으로써 올바른 그리스도인을 형성하지 못하고 도리어 잘못된 학교교육을 정당화해 준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 교단은 이미 1970년에 하나님의 선교 신학에 근거하여 교회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 민족의 정의로운 평화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토록 하는 교회교육을 수행해 왔다. 이 교육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기존의 교육에 대한 반성과 함께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면서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1) 성서와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인간과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

① 성서가 증언하는 인간은 개인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하는 공동체적 존재이다(창1:26~27). 따라서 인간은 개인적 존재로 태어나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공동체적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하는 공동체적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적으로 남녀가 구별되고, 인종적으로 또는 환경과 개인의 성장발달 과정에 따라 각기 특성이 달리 형성되긴 하지만 그것이 인간들 사이의 우열을 가리키는 차별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각기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평등한 존재이다. 평등한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인간 상호관계의 원형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다. 일체인 하나님으로서 삼위의 관계란 상호섬김(디아코니아)으로서 하나됨(코이노니아)이다. 따라서 인간 상호간도 서로 섬김으로 하나되는 것이 올바른 공동체적 존재양식이요 관계이다.

② 성서가 증언하는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영혼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고 육체는 악마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이원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인적 존재이다(창 1:26-27, 2:7-25). 따라서 영혼은 신적인 것이요 선하며, 육체는 악마적인 것으로 악하다고 하는 이원론적 신앙은 성서적 창조신앙이 아니다.

이것은 희랍의 이원론적 사상을 초대 기독교가 잘못 수용한 결과이다. 희랍인들은 자신들만이 영혼이 있는 존재이고 비희랍인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지 못한 육체만이 있는 존재라고 규정하여 이 영-육 이원론을 비희랍인들을 정복하고 노예화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사용했다. 이러한 영혼과 육체에 대한 이원론적 지배 이데올로기는 희랍인과 비희랍인의 관계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즉 남성에게는 영혼이 있고 여성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야 한다는 성(性)에 대한 불평등한 이원론을 형성한 것이다.

이와 똑같은 논리로 백인들은 자신들에게는 영혼이 있고 유색인종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규정하여 인종에 대한 불평등한 이원론을 정설화하였다. 오늘날에는 학교교육 제도 자체가 영혼의 위치를 대신하고 있다. 즉 학교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영혼(머리)이 있는 사람이요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혼(머리)이 없이 육체만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학력에 의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전자에 속하는 사람은 정신노동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고 후자에 속한 사람은 육체노동과 낮은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불평등한 체제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오늘날 인간이 겪고 있는 온갖 억압과 불평등의 요건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분리하여 차별하는 것이 도리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이러한 생각을 정당화해주는 가치관이다. 따라서 우리는 희랍의 영-육에 대한 이원론적 지배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인간 이해를 바른 신앙처럼 여겨서는 안 되며, 이 보다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전인적 존재라는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③ 성서가 증언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좋다고 하셨다(창1:1~13).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참 좋다고 하신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든

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희랍의 이원론적 세계관에 몰입되어 이 세상이 악한 것은 세상의 소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이 저지른 악을 극복할 노력은 하지 않은 체 이 세상을 벗어나서 저 제상에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믿어 왔다.

하지만 세상을 부정하고 도피하려는 신앙 양식 속에 세상의 물질 소유와 출세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모순된 신앙이 공존하고 있음을 본다. 즉 인간이 저지른 세상의 악을 선으로 이기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대해서는, 악한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지거나 참여하는 것이 마치 순수한 신앙을 해치는 것처럼 생각하는 반면,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출세하고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왜곡된 신앙이 이기적 욕망에 따라 편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가 세상의 악에 대해 무책임하게 도피하였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태어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회적 현실을 떠난 악과 죄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독교는 이원론적 세계관과 인간관에 붙잡혀 악과 죄의 현실을 외면하고 인간 내면의 악과 죄만을 문제시해 왔다. 따라서 기독교가 잘못 수용한 이원론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소외시켜 온 왜곡된 현실을 원상으로 회복할 때 공산주의가 비판한 기독교의 현상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공산주의가 설 자리도 없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또 다른 메시아로 오인되는 모든 이념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랍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정통 신앙처럼 고수하는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선하고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으로 가꾸고 지켜가겠다고 하는 신앙적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

④ 성서가 증언하는 자연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창조된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은 인간의 정복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유기체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생명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창1:28)고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무자비하게 자연을 수탈하고 파괴해 왔다. 그러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표현은 그 당시 왕권적 세계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헤아려 해석해야 한다. 왕권적 세계관에 근거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백성을 수탈하고 짓밟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도 폭군이어서는 안 된다.

즉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표현은 자연이 아름답게 되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잘못 이해한 하나님의 자연 창조 섭리를 올바로 인식하고 우리의 오류를 바로잡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 보전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일반 학교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

①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은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자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를 살아갈 미성년자들에게 그 준비과정으로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은 과거와 같이 세계의 변화가

완만하거나 거의 없고 기성세대의 지식과 경험이 다음 세대에 그대로 통용될 경우 실효를 거둘 수 있었겠지만, 오늘과 같이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더욱이 새로운 지식이 폭증하는 세계에서는 그 실효를 거두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은 기성세대의 지식이나 경험의 내용을 전달하고 답습하는 교육이 아니라 과거의 문화유산과 경험을 전달받으면서도 이 세계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탐구하며 자신들의 삶의 경험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새로운 세계에서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어야 한다.

②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은 정신적이라고 생각하는 추상적이고 관념화된 지식만을 순수한 지식이라고 생각하여 육적인 것, 곧 실제 생활과 생활에서 깨달은 경험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 결과 정신노동이 우월한 것이며 육체노동은 천시해도 되는 것처럼 교육함으로써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성실하게 자기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민중을 천시하고 도리어 민중의 노동을 착취하여 편히 살아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가치가 전도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을 극복함으로써 관념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 사이의 모순과 괴리를 극복하게 하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통합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 평등한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은 교육의 내용인 지식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교육을 한다고 해왔다. 그러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이라는 것도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즉, 아무리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누군가가 선택한 지식이며 그 선택의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다.

더군다나 그 판단의 기준이 지배집단의 관점에 의해 정해질 경우 피지배집단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라는 명분에 의해 지배와 예속을 당하게 된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교육이 이러했다. 지배집단은 지금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지식의 교육을 통해 자신의 지배구조를 재생산해 왔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지식과 교육 속에 숨겨진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지식과 교육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④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은 개인 출세주의를 그 목표로 진행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협동과 사랑을 말한다 해도 그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경쟁관계에서 친구도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교육 풍토를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 가족이나 만족도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용하고 수단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지 못하는 현실을 초래하였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세태가 되었다. 이러한 교육은 가정과 민족공동체를 파괴하고 끝내는 자신마저 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 출세주의를 지향하는 교육에서 탈피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3) 교회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

① 지금까지의 교회교육은 학교교육처럼 기성세대들이 미성년자들에게 자신들의 교리와 신앙을 전수시키는 것 외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기성세대의 교리와 신앙의 양식이 중요한 전통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을 그대로 답습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교리란 시대와 환경, 그리고 삶의 양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요, 신앙 속에 담긴 가치 또한 그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교육은 신앙과 교리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서를 통해 바른 신앙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어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올바른 성서교육이 요청되는 것이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신앙교육이란 미성년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곧 교육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지금까지의 교회교육은 말로는 인간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도 실제로는 인간의 차별대우를 당연시해 왔다. 심지어 부자나 권세 잡은 자는 신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반면에 가난한 자나 약자는 신의 저주를 받은 자들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하여 신의 이름으로 민중을 지배하고 수탈하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켜 놓고 교회생활을 하도록 오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교회교육은 성서가 증언하는 올바른 창조신앙에 의해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총체적인 인간성을 회복하며 올바른 믿음을 가지며 정의로운 세계를 이루어 가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교육이어야 한다.

③ 지금까지의 교회교육은 보편적인 하나님, 보편적인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수행되어왔다. 그런데 그 보편적 관점이 누구의 관점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특히 지배집단의 관점에서 인식한 보편적인 하나님이요, 보편적인 신앙일 때 피지배집단은 그 보편적이라는 명분 속에 들어 있는 지배집단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예속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지배집단은 하나님과 신앙의 명분을 가지고 피지배집단을 지배하게 되고 이 지배는 정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에 따라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보편적 하나님이란 도리어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추상화시키고, 보편적 신앙이란 구체적인 응답으로서의 신앙을 내면화시키는 잘못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배집단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보편성과 하나님에 대한 추상화와 내면화를 극복하고 올바른 신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교회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④ 지금까지의 교회교육은 개인주의적 신앙에 사로잡혀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도 이웃의 희생을 통한 개인의 출세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포해 왔다. 그 결과 개인의 출세라는 측면에서 성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실패한 사람에게는 저주를 선포하는 교육을 자행해 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주의적 신앙을 극복하고 개인 출세주의지향의 교육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2) 교회교육 내용

(1) 정의의 인간을 위한 교육

① 정의의 원리야말로 신·구약성서의 핵심 주제임을 인식케 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저항하는 용기임을 가르친다.

②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체 안에서 주체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살려 가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③ 노동은 본래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며, 오히려 자기만 살려고 하는 생존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노동이 고역이 되었음을 바르게 인식케 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은 자기실현과 창조의 과정이요 인간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대의 매개이며 자연과의 화해 과정이기도 함을 깨닫게 한다.

④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에는 차별이 없음과 모든 형태의 노동은 평등함을 인식케 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에 따른 생산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와 축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⑤ 인간 사회 속에서, 그리고 자연 속에서 불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과 자연의 아픔을 함께 느끼도록 교육한다. 그리하여 고통과 슬픔은 함께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함께 나눌수록 커진다는 진리를 깨달아 봉사 공동체와 친교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⑥ 인간의 악과 죄는 내면적인 회개만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악과 죄를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가능함을 인식케 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정의의 실현을 통해 선한 인간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2) 사랑의 인간을 위한 교육

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인식하도록 돕는다(요일4:21).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요일 4:21)에 따라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②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있음을 알도록 하여 진정한 사랑의 실천은 서로 종노릇 하는 것임을 깨닫도록 돕는다(빌2:1~11).

③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며(요일3:24),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요일4:12)는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돕는다.

④ 사랑은 동정이나 보호가 아니라 인간을 인간으로 인정하는 인격적 행위임을 가르친다. 특히 동정과 보호는 인간의 성장을 막고 인격적 인정은 성장과 발달에 기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도록 돕는다.

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바로 파악하여 적대화된 민족 공동체를 화해케 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평화의 인간을 위한 교육

① 평화란 현실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파괴하는 요인을 제거할 때, 곧 정의가 실현될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올바로 알아 위장된 평화에 속지 않도록 깨우친다.

②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곧 평화의 원리를 삶속에서 실천하며 평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ㄱ. 현 세계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핵무기 및 공격 혹은 방어용 무기의 철폐를 위해 일하는 자녀가 되도록 돕는다.

ㄴ. 민족의 적대화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평화공동체의 일꾼이 되도록 돕는다.

ㄷ. 현대사회의 한 시대적 특징인 폭력주의, 무력주의 및 세계군사 질서에 의존하는 강한 자들의 비인간화 과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ㄹ. 불의한 지배집단의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반공이데올로기를 신앙인 것처럼 생각해 온 잘못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ㅁ. 인간 사회의 갈등 문제를 인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통찰을 통해 불신앙, 욕망, 오만, 태만 등의 요소와 연관지을 수 있게 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 윤리와 집단 윤리의 차이를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창조 세계의 보전을 위한 교육

교회교육은 유기체적 창조 세계의 보전 원리를 성서 전체를 통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히 다음 사항들이 교육 지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① 성서가 증언하는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좋다!'고 선언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이고, 이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은 서로 유기적 연대 관계에 있는 것이며, 인간은 살아 있는 자연의 궁극적인 영광의 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② 자연은 물질의 집합체나 기계가 아니라 살아서 창조적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밭이며 새로운 것, 아름다운 것, 영성적인 것의 완성을 향해 산고의 몸부림을 계속하는 과정에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③ 물질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유물론이나 정신만을 절대시하는 유심론 및 관념론적 자연관을 극복하고 성서적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아직도 창조과정에 있는 물질의 존귀성을 깨닫도록 교육함으로써 기독교 신앙 안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영지주의적 물질 경시 사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④ 인간과 광물, 식물, 동물 등과의 관계는 창조 세계의 한 연대 식구임을 느끼도록 돕고,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생태계의 붕괴위협, 전쟁의 위험, 자연 파괴 및 수탈의 비윤리성 등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⑤ 남녀 성의 평등함, 존귀성, 아름다움, 상보성, 그리고 각기의 고유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여성의 상품화 및 소외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교회의 내적 충실과 사회선교를 지향하는 교육

교회교육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요, 동시에 교육의 사회선교를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

① 교회가 처해 있는 장소와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② 교회가 처해 있는 지역 사회 여러 문제와 복음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히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③ 교회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완수할 방법을 개발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④ 우리가 믿는 바를 세상에 선포함에 있어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통해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⑤ 효과적인 선교와 봉사를 위한 적절한 정도의 양적 성장도 필요한 것이기에 사람들의 지적인 요구와 감성적인 요구의 조화, 프로그램의 혁신, 선교대상 및 선교지의 다변화 모색 등에 대해서도 깊은 배려를 해야 한다.

⑥ 사람의 고민과 기쁨을 서로 나누고 꿈과 희망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 삶의 공동체로서의 친교를 형성할 수 있게 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뜻을 함께하는 것이 여러 교회와 단체와 폭넓은 친교와 협동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⑦ 이원론적인 타계주의나 무교적인 위복주의의 시각에서 복음을 이해해 온 잘못된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선교신학에 기초하여 복음을 재해석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를 교회의 삶 속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⑧ 종교 의식적인 예배 및 일상생활까지를 예배의 경지, 즉 생활예배로까지 승화시키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하며, 동시에 현대인의 생활감정에 맞는 새로운 예배 내용과 형태도 개발하여 교회의 삶을 성숙케 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⑨ 하나님의 구원행위를 증언하고 있는 성서연구를 함에 있어서도 단편적, 문자적, 평면적 이해를 지향하고 복합적, 입체적인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성서를 바로 볼 수 있게 돕는다.